

## 2월 1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1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 제목   | 주요 내용  |
|--|--|
| 뉴욕 상승..`경기부양안 기대-금융주 반등`<br>[다우: 7939.53<br>(+0.64%)]    | 11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마침.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7,890억 달러의 단일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지지. 전날 급락했던 금융주가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주도. 그러나 금융구제안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되면서 지수는 장중 하락권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며,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주가 약세를 나타냄.   |
| 美 상·하원, 7,890억弗 경기부양법안 잠정 합의                             | 미국 상원과 하원은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잠정 합의.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상원과 하원이 이 같은 잠정안을 토대로 세부 항목 조율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12일~13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7,890억 달러 규모로 경기부양법안 타협이 이뤄졌다"며 "이 가운데 세금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라고 밝힘. 민주당 지도부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단일법안을 승인해 오는 16일 `프레이저먼트 데이`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 |
| 무역적자 `6년 최저`.. 글로벌 후퇴 여파                                 | 상무부는 12월 무역적자가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모두 위축되면서 399억 달러로 전월의 416억달러(수정치) 대비 감소했다고 밝힘. 이는 6년만에 최저치이나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350억 달러는 웃돈 수준.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입이 5.5% 감소한 1,737억 달러를 기록. 이는 지난 2005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출은 6% 줄어든 1,338억 달러로 2007년 5월 이후 최저치.   |
| 유가, 1개월 최저..`원유재고 7주째 증가`<br>[WTI: \$35.94<br>(-\$1.61)] |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7주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에 나홀짜 하락세를 지속, 1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짐. 미국의 원유 재고는 7주 연속 증가, 1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주(6일 마감) 원유 재고가 전주대비 470만 배럴 증가한 3억5,08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힘. 반면 휘발유 재고는 260만 배럴 줄었고,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도 100만 배럴 감소.   |
| 유럽 증시, 소폭 상승   | 유럽 주요국 증시는 11일 뉴욕 증시의 반등 소식과 상품주의 상승에 힘입어 소폭 상승.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 100 지수는 0.50% 상승한 4,234.26에 거래를 마감.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 40은 0.23% 오른 3,027.72로 3천선을 지켰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도 4,530.09로 거래를 마쳐 0.54% 오름. 유럽 증시는 이날 오전 하락 출발한 후 등락을 거듭했으나 오후 들어 뉴욕 증시의 반등세 소식에 힘을 얻어 상승세를 유지.                          |

| 제목                         | 주요 내용  |
|----------------------------|--|
| 英실업자 197만 명..1997년來 최고     | 영국의 작년 10~12월 실업자가 197만명으로 급증해 199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영국 국가통계청은 11일 영국의 실업률이 1998년 이래 10년 만에 최고인 6.3%에 달했다고 발표. 실업자 숫자는 3개월 동안 14만6천명 증가함. 1월에도 실업수당 신청자가 7만3천800명 늘어나 1999년 여름 이래 최고인 123만명을 기록했고, 실업수당 신청자는 12개월 연속 증가세.  |
| 日 車업계 부진 여파 `도미노`..보험사도 타격 | 일본 자동차산업 부진이 전방위적인 소비 급감으로 파급되고 있는 가운데 비생명보험사와 할부금융사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12일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 비생보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이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는 자동차판매 침체 영향으로 보험료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中 조선업 지원책 발표               | 중국 국무원이 10대 산업진흥책 가운데 하나로 조선업에 대한 지원책을 11일 발표. 이로써 중국이 지금까지 진흥책을 발표한 산업은 철강, 자동차, 직물, 기계장비, 조선 등 5개 분야이며 석유화학, 경공업, 전자, 비철금속 등 5개 분야에 대한 발표가 대기 중. 10번째 지원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 작년 한국 물가 OECD 6위           |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가 최근 발표한 각국별 연평균 물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4.7%를 기록해 30개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높음.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 물가가 3.7%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1% 포인트 이상 높았던 셈. 특히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2007년 2.5%에서 지난해 4.7%로 무려 2.2% 포인트나 올라 물가 충격이 컸던 것으로 OECD는 분석. 한국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 4.7%는 외환 위기를 겪던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
| 반도체 '1강 3중' 재편 가속도         | 경기침체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업계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D램 업계 세계 3위인 일본의 '엘피다'와 대만 반도체 3사가 통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제2의 거대 칩메이커가 탄생할 전망이다. 일본과 대만 연합군은 세계 2위인 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맹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
| GM대우도 정부에 "도와달라" 요청        | GM대우는 정부 측과의 만남에서 "앞으로 경영과 유동성 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GM대우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직접적 지원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   |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